

# 『救急簡易方』에 대한 소고 II

## -霍亂門을 중심으로

김단희, 차웅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A Review on 『GuGeupGanIBang(救急簡易方)』 II

#### -Focused on Gwakran Section

Kim Dan Hee, Woongseok Cha, Namil Kim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College, KyungHee University*

1. An analysis of 『GuGeupGanIBang(救急簡易方)』 through Gwakran(霍亂) showed that the reference books are not concretely cited, but the symptoms are described in detail ed to let the common people understand and deal with Gwakran(霍亂) easily. It has the most detailed among Korean annotation emergency treatment books. It focuses on moxibustion and hot medicinal compress rather than acupuncture. The Korean annotation is translated in the order of the Korean language, so anyone can execute the treatments. The annotation used a lot of active verbs, so it is more of a book for the patient, not the doctor. So we can understand that this book is focused on the practical tips at an actual emergency situation.
2. 『GuGeupGanIBang(救急簡易方)』 is the most complete emergency treatment book and a Hangeul medical book, which is scarce. It was published shortly after the invention of Hangeul. It is an important material showing how terms related to medicine such as disease, prescriptions, symptoms were understood and expressed. As it is important in both medical book presswork study and Korean language study, it is designated as treasure.
3. The existing 『GuGeupGanIBang(救急簡易方)』 seem to be a reissued version. It is also not complete and scattered in several places. Volumes 1,2,3,6 and 7 survived, and volumes 4,5 and 8 have not been found yet.

Key Words : GuGeupGanIBang, GuGeup, Gwakran(霍亂), Hangeul GuGeup medical book.

## I. 서론

구급방은 일반 민초들과 가장 가까워서 그들을 치료한 실제 경험방으로 실용적이면서도 구급의 상황을 신속히 개  
 선시킬 수 있는 치료효과가 입증된 것만 모아 놓은 것이기  
 에 우리 의학의 일면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이러한 구급방  
 들은 그 당시에 많이 발생하는 병들을 모아 놓았을 것이기  
 에 당시 유행한 질병들을 짐작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민초

들이 쓴 약제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며, 많이 앓  
 았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에,  
 시대별로 구급방서들을 연계하여 연구한다면 우리의학의  
 질병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급  
 방에 대한 연구는 한국한의학의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  
 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급방서 중 『救急簡易方』은 한글 창제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행된 서적이기 때문에 질병, 약제, 병  
 증 등 의학과 관련된 단어들도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고 표  
 현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급의서<sup>1)</sup>이다.

접수 ▶ 2010년 11월 20일 수정 ▶ 2010년 12월 15일 채택 ▶ 2010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1-0671 E-mail southkim@khu.ac.kr

1) 안상우, [고의서산책 267] 『救急簡易方』 편, 민족의학신문 제537호.

『救急簡易方』은 희귀한 한글 의학서적으로서 의약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인쇄문화연구나 국어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문화재청에서 현재 보물 제1236호로 지정하고 있는데, 보물 제1236-1호(1996년 지정)는 충북 음성군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보물 제1236-2호(2006년 지정)는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현존하는 『救急簡易方』은 본래 原刊本이 아니고 覆刻本으로 보이는 重刊本이라 알려져 있다. 이 重刊本도 完帙이 아니고, 권1은 蕘文庫에, 권2는 안동에 사는 金永倬씨가, 권3은 東國大 圖書館에, 권6은 李謙魯氏와 한독의약박물관 한국관 內 일산 김두중박사 기념문고에 소장 전시되어 있고, 권7은 古 金完燮氏 등에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2)</sup> 그래서 현재 1,2,3,6,7권만 전해지고 있고, 4,5,8권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3)</sup>

논자는 한국의사학회지 제23권 제1호에서 『救急簡易方』의 특징에 대해 소략하게 살펴본 바가 있는데, 본 논고에서는 霍亂門의 분석을 통해 『救急簡易方』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救急簡易方』의 특징 중 하나가 언해된 구급의서라는 것이기에 본 논고에서는 霍亂門을 분석하면서 언해된 구급의서인 『救急方』 『診解救急方』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 1.1 자료수집

한의학지식정보에서 ‘救急’으로 검색하여 먼저 구급방을 찾아보니, 오직 구급치료를 위해 쓰여진 방식로는 『救急單方』, 『救急方抄』, 『救急易方』, 『博施良方』, 『軍中醫藥』, 『鄉藥救急方』, 세조대 『救急方』,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村家救急方』, 『救急良方』, 『診解救急方』, 『家庭救急方』 등이 있다.

이들 책 중에서 霍亂이 나오는 구급방은 세조대 『救急方』(1466년), 『救急簡易方』(1489년), 『救急良方』<sup>4)</sup>(1559년), 『診解救急方』(1607년), 『救急單方』<sup>5)</sup>, 『救急易方』,<sup>6)</sup> 『博施良方』,<sup>7)</sup> 『家庭救急方』,<sup>8)</sup>(1928년) 등이다.

### 1.2 연구방법

『救急簡易方』이 언해본이기에 본 논고에서는 霍亂門을 분석하면서 언해된 구급의서인 『救急方』 『診解救急

2)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診解』, 東洋學叢書 第九輯, 田光鉉 解題 p.2.

田光鉉은 권6이 韓獨藥品 藥史館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한독의약박물관 한국관 內 일산 김두중박사 기념문고에 소장 전시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3) 정순덕은 「『救急方』의 의과학적 연구」 p.44에서, 6권도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류이다. 왜냐하면, 사단법인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에서 2008년 11월30일에 발행한 『역주 「구급간이방언해」 6』이 있기 때문이다.

4)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정보 웹서비스, 救急良方, <http://jisik.kiom.re.kr/DB>.

조선시대 때 안위가 파낸 식체(食滯), 상풍(傷風), 상한(傷寒), 광란(霍亂), 변비(便秘) 등에 관한 처방을 기록하고 있는 의방서.

5)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정보 웹서비스, 救急單方, <http://jisik.kiom.re.kr/DB>.

각종 질병에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방(單方)을 모아 놓은 책이다.

찬자(撰者)는 공산(公山, 지금의 공주(公州))의 화순당(和順堂) 주인이며(성명은 미상이다), 다루어진 질병의 수는 중풍(中風), 종창(腫脹), 정충(征沖), 면병(面病)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산후유즙불통(產後乳汁不通)에 이르기까지 총 91개 항목.

6)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정보 웹서비스, 救急易方, <http://jisik.kiom.re.kr/DB>.

이 책은 구급이방(救急易方)과 경험방(經驗方) 두 종류의 의서(醫書)를 모은 것인데, 전자는 중국인 조숙문(趙叔文, 자(字) 계부(季敷))의 『구급이방(救急易方)』과 허준(許浚)의 『언해구급방(診解救急方)』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경험방인데 그것이 찬자 자신의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필사본 단책(單冊) 112장으로 되어 있으며, 찬자와 연대 모두 미상(未詳)이다.

7)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정보 웹서비스, 博施良方, <http://jisik.kiom.re.kr/DB>.

조선시대에 나온 구급(拘急) 및 전염병(傳染病)에 관한 의서(醫書)이다.

한 책으로 묶여 있으며, 저자와 저술연대는 알 수 없다.

구오절(救五絶), 안태최생약방(安胎催生藥方), 이전불출천화경험기방(異傳不出天花經驗奇方), 경험학 질기방(經驗瘧疾奇方), 숙부경험구급양방(續附經驗救急良方), 오상구급(誤傷救急), 일체중독구급양방(一切中毒救急良方), 예방담병요결(豫防痰病要訣)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정보 웹서비스, 家庭救急方, <http://jisik.kiom.re.kr/DB>.

한약과 양약 처방 중에서 구급에 필요한 처방을 엄선한 구급의학 전문서적.

이 책은 1928년 박용남(朴容南)이 지어 발행한 것이다.

이 책은 구급요법에 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쓸데없는 이론보다는 증상과 치료법, 약물 등을 간결하게 기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方』과 비교하기로 한다.

언해된 세 구급방서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질환 중 현대적인 병명과 연결시킬 수 있고, 현재에도 일상에서 응용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언해된 구급의서들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병명을 찾아보기로 했다. 세 구급방서에서는 17개<sup>9)</sup>의 병명이 같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霍亂은 이 중의 하나이다.

『東醫寶鑑』에서도 救急門을 하나의 門으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음은, 전대에 있었던 구급의학을 정리하고 보완하며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東醫寶鑑救急門』에서 화타가 말한 10가지 구급질환<sup>10)</sup>중 첫 번째 나오는 질환도 霍亂이다.

『醫方類聚』의 『三因方』에서는 ‘霍亂이 갑자기 생기는 병중에서도 가장 심한 병이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발작하여 죽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sup>11)</sup>라고 기록하여 霍亂의 위급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霍亂의 증상은 명치아래와 배가 갑자기 아프며 토하고 설사하면서,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먼저 명치 아래가 아프면 토하고 먼저 배가 아프면 설사를 하며, 명치아래와 배가 다 아프면 구도와 설사가 함께 난다. 이 병이 심해지면 쥐가 나는데 이것이 속으로 들어가면 죽으니 霍亂의 악증이다.’<sup>12)</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霍亂의 증상은 갑자기 토하고 설사(泄瀉)가 나며 고통(苦痛)이 심한 현대의 급성위장염과 유사하며, 식중독이나 전염성 질환인 콜레라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霍亂이 나오는 구급방을 다 찾았으나 언해를 함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한 언해구급방들의 霍亂을 비교함으로, 『救急簡易方』의 특징을 찾아보는 것이 유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sup>13)</sup> 3권의 언해구급방서에서 다루고 있는 霍亂만 분석하기로 했다.

분석 자료로 삼은 언해된 구급방은 세조대 『救急方』, 『救急簡易方』, 『診解救急方』 세 가지 책이다. 이들 언해된 구급방서들 간에 霍亂에 인용된 인용서적, 霍亂의 원인, 증상, 처방, 침구법 및 물리요법, 금기법, 언해의 7가지 측면에서 세 구급의서를 비교함으로 『救急簡易方』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霍亂門을 통해 살펴본 『救急簡易方』

### 2.1 인용서적을 통해 살펴본 『救急簡易方』의 특징

『救急方』의 인용서적은 모두 7종<sup>14)</sup>으로 『經驗良方』, 『葛氏備急方』, 『直指方』, 『聖惠方』, 『經驗祕方』, 『醫方集成』, 『壽域神方』 등이고, 『救急簡易方』의 인용서적<sup>15)</sup>은 1종으로 『和劑方』에서 인용했고, 『診解救急方』은 인용서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반백성이 구급질환의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인용서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증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해 주고, 처방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해 줌으로 실질적으로 치료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구급의서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인용서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救急簡易方』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2.2 霍亂의 원인을 통해 살펴 본 『救急簡易方』의 특징

원인에 대한 언급은 『救急方』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즉, 始因飲冷 或胃寒 或失飢 或大怒 或乘舟車傷動胃氣 함으로 霍亂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는데, 『救急簡易方』과 『診解救急方』에서는 원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는 霍亂의 원인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원인에 대한 언급이 구급상황에 꼭 필요한 언급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救急方』보다는

9) 세 구급의서에서 똑같은 병명으로 나오지는 않고,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비교를 할 수 있는 질환을 모두 찾아보았다. 『救急簡易方』에 나오는 질환을 기준으로 보면 17종이 되고, 『救急方』을 기준으로 보면 16종이 된다. 17종의 병명을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中風, 中寒, 卒死, 自縊死, 溺死, 霍亂, 吐血, 失欠領車蹉候, 大小便不通, 白虫入耳, 六畜肉毒, 一切魚毒, 骨鯁, 菜毒, 金瘡, 打撲傷損, 湯火傷.

10) 허준, 『東醫寶鑑』, p.590.

華佗云人有急病疾如風雨命醫不及須臾不救視其橫夭實可哀矜子選十件危病三十妙方以救之不可不知○又云人有急病疾如風雨須臾不救命在頃刻世人纔見一時氣絕便以爲死更不知有可救之理可救之方故以所歷經驗數方錄辨以廣其傳便可對證尋方服藥急救庶幾會卒無夭橫之患矣○一霍亂吐瀉(詳見霍亂門)○二纏喉風閉塞(方見咽喉門)○三吐血下血(方見血門)○四中砒毒(方見解毒門)○五尸厥○六中惡客忤○七脫腸○八鬼魔鬼打○九孕婦橫逆產(方見婦人門)○十胎衣不下(方見婦人門)

11)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校, 『醫方類聚·校點本 第五分冊』, P.695.

12)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校, 『醫方類聚·校點本 第五分冊』, P.695.

13) 『救急簡易方』의 특징 중 하나가 언해 되었다는 것이므로, 언해 구급의서 간 비교를 하는 것이 유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선택하였음을 밝혀둔다.

14)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 1권, PP.159-170.

15) 『救急簡易方』, 『韓國醫學大系』 2권, P.357.

『救急簡易方』이 실제 구급상황에 필요한 내용위주의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霍亂의 증상을 통해 살펴 본 『救急簡易方』의 특징

표1. 언해된 구급의서에 기록된 霍亂 증상 모음.

구급방	吐瀉併作 頭旋眼暈 手脚轉筋 四肢逆冷, 脚轉筋, 絞腸沙腹痛不可忍或展轉在地或起或仆, 煩悶湊滿, 心腹脹痛, 吐下後大渴多飲, 吐瀉心腹作痛, 吐不止欲死, 乾霍亂欲吐不吐欲瀉不瀉, 霍亂已死 上屋喚魂, 中暑霍亂心煩渴不省人事, 急心痛
구급간이방	吐下不止欲死, 洞下不止, 吐下腹痛, 轉筋不止, 乾霍亂腹脹如鼓 心胸痰壅, 引飲飲輒乾嘔, 轉筋入腹, 困篤不識人, 心腹脹痛煩滿短氣未得吐下, 嘔吐煩悶, 渴甚, 吐下太渴, 吐止而瀉未除者, 霍亂後胃氣煩逆, 霍亂已死上屋喚魂又以諸治皆至而猶不差
언해 구급방	吐瀉劇四肢厥冷不省人事, 吐瀉不止心腹絞痛, 乾霍亂心腹痛據手足厥冷須臾即死,

표1에서 보면, 『救急簡易方』과 『救急方』은 증상에 대해 자세하게 나열식으로 언급하고 있고, 『診解救急方』은 霍亂이 심해질 때의 증상만 언급하고 있다. 이는 霍亂의 주 증상이 토하고 설사하는 것이지만, 심한 복통이나 轉筋이나 갈증의 증상도 기록하고 있는 『救急簡易方』이나 『救急方』이 『診解救急方』보다는 일반백성들이 霍亂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쉽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4 霍亂의 처방을 통해 살펴 본 『救急簡易方』의 특징

霍亂의 처방에 대해 살펴보면 단방과 복합처방이 나오는데, 위 표를 보면 『救急簡易方』의 단방처방이 『救急方』이나 『診解救急方』보다 훨씬 많고, 복합처방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단방을 기록함으로써 일상에서 빨리 구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알 수 있고, 복합처방을 기록한 것은 단방으로 부족한 증상에 대해서는 복합처방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방 중에서는 소금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고, 식초, 술, 생강, 마늘, 쑥, 소변, 똥(소똥, 말똥, 돼지똥, 쥐똥), 꿀, 찹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단방들은 일상에서 쉽

표2. 언해된 구급의서에 기록된 霍亂 처방 모음.

구급방	吳茱萸, 木瓜, 食鹽, 枯白礬, 鹽+醋(煎), 鹽梅鹹酸等物, 赤蓼莖葉, 大蒜, 鹽(湯, 乾霍亂), 石沙를 炒하고 담근 물, 乾薑屑, 小蒜, 生薑, 桂皮+半夏, 生大豆屑+酒, 黃米卽黍米, 蒲席(헌부들지죽), 生薑+牛糞, 丁香, 綠豆+胡椒, 鹽+生薑+童子小便(乾霍亂), 白蜜 馬糞, 蠶子の舊紙(燒灰爲末用熱酒調服), 久乾猪糞+砂仁
구급간이방	단방 生羌, 艾, 附子+鹽, 桃葉(겨울에는 桃皮), 小蒜, 蘆葉, 鹽湯(浸手足 洗胸脅間), 釜底墨(末燒酒調下), 舊木梳(燒灰爲末酒服), 車轂中脂(塗足心下), 胡麻油(足塗 向火灸之既死乃活, 以湯水漬足膝), 鹽+童子小便(溫和服少頃當吐下), 紫檀香, 鹽+生薑+童子小便(溫服), 丁香末(熱酒調之頓服), 黍米(水淘淨水研澄取白汁), 高良薑, 童女月經衣(合血燒末酒服, 霍亂醫所不治), 極鹹鹽湯(槽中暖漬之), 酢煮青布, 生薑+牛糞, 梨葉(汁服), 鷄蘇(뭇방하), 胡椒+綠豆+木瓜湯調下, 鹽+醋, 生薑若乾薑(咬咀, 頓服), 好苦酒, 溫酒+蠟(無蠟以鹽), 桂屑, 竹瀝, 人參+鷄子白(頓服), 糯米(取白汁), 黃粱米, 竈心土, 苦苣根(生搗汁飲), 菡豆+香薷, 生胡椒, 枯白礬末+百沸湯, 乾薑屑, 生薑, 生大豆屑, 大蒜(磨脚心令遍熱)
언해 구급방	복합처방 理中湯 治中湯 藿香正氣散 天星末+생강+대추, 木瓜 或 林禽青, 秬藟葉(찰기장잎)이나 蓼(여뀌풀)를 진하게 달여서 마신다. 百草霜末, 黃犢子糞, 蘆花, 糯米, 木瓜, 鹽湯+卓角末(探吐), 百沸湯+新汲水+鹽一合(探吐), 鼠屎, 鹽+生薑+童溺

게 구할 수 있어 누구나 신속히 구급의 상황에 대처하여 목숨을 잃지 않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치우친 지역이나 지방 고을·궁항벽촌에서 병이 일어남에 소홀히 한 바로 창황 중에 조치시기를 놓쳐 救止함을 알지 못하고, (병을 구하고 그치게 하는 법을 알지 못함) 생명을 잃는데 이르는 자도 그 기미를 알지 못하니...이 것이 이 책을 쓴 이유이다... 한 가지 라도 괴로워하는 바가 있을 때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널리 물을 필요가 없이 부녀나 어린아이라도 책을 열고 方을 검토하면 치료의 術이 마음과 눈에 확연하여 보통의 손쉬운 물건(약재)으로도 죽음이 드리워진 命을 이어가게 할 수 있다...”<sup>16)</sup>라고 허중

16)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診解·東洋學叢書 第九輯』, pp.15-16.  
...如偏州下邑, 窮鄉僻村, 病起所忽, 蒼黃失措, 莫知救止, 以至於喪生者不知其幾... 此此書之, 所以作也...一有所苦, 不必旁走廣詢, 雖婦

이 서문에서 밝힌 『救急簡易方』의 편찬의도를 여기서도 읽을 수 있다.

소금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볼 예정이다.

### 2.5 침구법 및 물리요법을 통해 살펴 본 『救急簡易方』의 특징

표3. 언해된 구급의서에 기록된 침구법 및 물리요법 모음

구급방	霍亂煩悶湊滿者 用鹽納臍中 灸二七壯(葛氏備急方) 복은 소금으로 胸前과 腹肚上과 背을 다림질한다. 去脊各一寸 灸之百壯
구급 간이방	脊大骨空中去脊各一寸 灸之百壯, 鹽納臍中灸二七壯, 炒鹽을 종이에 싸서 胸前과 腹肚을 보호하고, 炒鹽으로 熨其背한다.
언해 구급방	吐瀉不止—天樞灸百壯 氣海灸百壯 中脘灸三七壯 氣絕但有煖氣 灸七壯甦 轉筋氣絕 納鹽臍中 灸二三百壯 氣海灸二七壯 乾霍亂手十指背近爪甲半分許鍼出血即安 又兩臂腕中及兩膝腕有紫黑點處鍼出血即愈. 吐瀉甚則偏體轉筋 入腹則死 教法男子以手挽其陰牽之 女子挽乳,

침과 뜸은 한의학에서 약과 함께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醫方類聚』에서도 『명당구경』, 『침경』, 『침구경』, 『자오유주』, 『침경지남』, 『옥룡가』 등 침뜸 의학서적을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17)</sup>

표3을 보면, 『救急簡易方』만의 특징적인 침법과 물리요법은 없지만, 세 언해구급의서에서 모두 灸法과 熨法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 2.6 금기법을 통해 살펴 본 『救急簡易方』의 특징

표4. 언해된 구급의서에 기록된 금기법 모음.

구급방	
구급 간이방	
언해 구급방	霍亂大忌 飲食雖米湯 入腹即死 必待吐瀉止 過半日飢甚方可與稀米飲 又宜氷水 不可飲熱湯 飲燒酒必死

금기에 대한 내용은 『救急方』이나 『救急簡易方』에서는 나오지 않고, 『診解救急方』에서만 언급<sup>18)</sup>하고 있는데, 후대로 갈수록 한 질환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7 언해를 통해 살펴 본 『救急簡易方』의 특징

언해 사업은 국가가 백성들을 위한 정책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에 속한다.

세종·세조대의 언해사업은 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언해사업은 주로 불경을 번역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의서의 언해가 정식으로 시작 되는 것은 세조대로 볼 수 있고<sup>19)</sup> 성종 대에 와서 『救急簡易方』이 언해되고, 중종 대에 와서야 한방의서에 대한 언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허준이 생존했던 선조 대가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救急簡易方』의 언해는 『救急方』의 언해와 함께 의사학적으로나 언해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sup>20)</sup> 언해사적 맥락에서 『救急簡易方』을 살펴보는 것은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본 논고에서는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救急方』은 霍亂을 ‘확관’으로 언해하고 있으며, 『救急簡易方』은 霍亂을 ‘도와리’로 언해 하고 있고, 구급언해방은 ‘가삼비알코토크츄치는병’(가슴 배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는 병)으로 언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救急方』은 霍亂이라는 병명을 그대로 언해하고 있으며, 『救急簡易方』에서는 霍亂이 어떤 병인지 풀이하여 언해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 병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언해하고 있다. 이는 『救急簡易方』의 편찬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백성을 생각하는 언해라고 볼 수 있다. 『診解救急方』은 霍亂의 주 증상뿐 아니라 霍亂으로 인한 부대증상까지 언해하고 있는데 이는 霍亂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해야 하는 대상을 위한 언해라고 볼 수 있겠다.

女兒童 開卷檢方 治療之術 了然於心目 而尋常容易之物 可以續垂死之命...

17) 김남일 · 이재동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p294.

18)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1권, P.413.

19)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診解』, 東洋學叢書 第九輯, 田光鉉 解題 p.1.

20)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診解』, 東洋學叢書 第九輯, 田光鉉 解題 p.2.

언해를 함에 있어 『救急方』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언해하고 있는 반면에, 『救急簡易方』에서는 우리말 어순대로 언해하고 있는데, 이는 언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이 책을 보는 사람이 바로 구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救急簡易方』을 보는 대상이 『救急方』을 보는 대상보다 쉽게 쓰여 져야 할 대상임을 짐작케 한다.

『救急簡易方』에서는 ‘머기라’라는 사동형은 1회 사용했으나, ‘머그라’라는 능동형은 30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救急方』에서 ‘머기라’ 5회 ‘머그라’ 9회, 『診解救急方』에서 ‘먹이면’ 4회 ‘먹으면’ 1회 쓰여진 것과 비교한다면, 『救急簡易方』에서 능동형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치료를 해 주는 대상을 위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치료받는 대상이 이 책을 읽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언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 III. 결론

이상으로 『救急簡易方』의 특징에 대해 霍亂門을 위주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救急簡易方』의 霍亂門에서는 인용서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인용서적으로 『和劑方』 1개만 언급하고 있었다. 원인과 금기법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증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열식으로 언급하여 일반 백성들이 霍亂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치료처방인 단방과 복합처방에 대해서는 언해된 구급의서 중 가장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었고, 침법과 물리요법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灸法과 熨法에 대한 내용은 있었다. 이를 통해서 『救急簡易方』이 실제 구급상황에 필요한 내용위주의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霍亂門의 언해를 통해 살펴보니, 우리말 어순대로 언해하고 있었고 언해만 보면 누구든지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언해 시 능동형 동사를 많이 사용함으로 치료를 해 주는 대상을 위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치료받는 대상이 이 책을 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해함으로, 언해된 구급의서 중에서 일반 민초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언해서임을 알 수 있었다.

2. 『救急簡易方』의 언해는 『救急方』의 언해와 함께 의

사학적으로나 언해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救急簡易方』은 한글 창제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행된 서적이기 때문에 질병, 약제, 병증 등 의학과 관련된 단어들이 당시에 어떻게 이해되고 표현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3. 『救急簡易方』은 희귀한 한글 의학서적으로서 의약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인쇄문화연구나 국어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문화재청에서 현재 보물 제1236호로 지정하고 있는데, 보물 제1236-1호(1996년 지정)는 충북 음성군 한독의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보물 제1236-2호(2006년 지정)는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4. 현존하는 『救急簡易方』은 본래 原刊本이 아니고 覆刻本으로 보이는 重刊本으로 알려져 있고, 이 重刊本도 完帙이 아니고, 권1은 蕡文庫에, 권2는 안동에 사는 金永倬氏가, 권3은 東國大圖書館에, 권6은 李謙魯氏와 한독의약박물관에, 권7은 古 金完燮氏 등에게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1,2,3,6,7권만 전해지고 있고, 4,5,8권은 아직 발견 되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1. 『救急簡易方』, 『韓國醫學大系』 2권, 여강 출판사, 1994, 서울.
2. 『救急方』, 『韓國醫學大系』 1권, 여강 출판사, 1994, 서울.
3. 『診解救急方』, 『韓國醫學大系』 1권, 여강 출판사, 1994, 서울.
4. 허준, 『東醫寶鑑』, 남산당, 1976, 서울.
5. 김남일·이재동 공편,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서울.
6. 안상우, [고의서 산책 267] 『救急簡易方』 편, 민족의학신문 제537호, 2005.
7. 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研究所, 『救急簡易方診解·東洋學叢書 第九輯』, 단국대학교 출판사, 1982, 서울.
8.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校, 『醫方類聚·校點本』

第五分冊』, 인민위생출판사, 1979, 북경.

9. 정순덕, 『救急方』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서울.
10. 한국 한의학 연구원 지식 정보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DB>.